



▶보기도 예쁘고 기습가능까지 있는 오리모양 토파어리

“ 동화나 만화에 단골 캐릭터로 등장해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오리. 툭 튀어나온 주둥이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절로 웃음이 난다. ‘노널드 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오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양산에 있는 오리박물관이 바로 이곳이다. ”



지중해풍의 오리박물관 건물 외관 마치 아티네션 집을 연상케 한다.



꽤 꽤~ 오리에 관련된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네~ “오리박물관” 박상용 관장의 재미있는 오리이야기!!



우리나라의 3대 사찰중의 하나인 통도사 인근에 자리 잡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392번지, 50여 채의 그림 같은 집들이 모여 사는 전원주택단지 입구에 위치한 세계최초의 개인소장 오리테마박물관!
예쁜 오리를 키우는 농장이 아닌, 맛있는 오리고기를 파는 식당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랜 세월 동안 구석구석 뒤져 모은 민속품, 골동품 오리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오리작품들, 자칭 오리야빠(관장)가 직접 만든 창작품오리들로 꾸며진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소한 오리 두 마리



오리모양의 어떤 식구들이 있는 아름다운 연못
오리들은 있다



오리모양으로 다듬어진 나무

17년 전부터 민속품, 골동품, 수석, 서각을 취미로 열심히 수집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더 신선하고 새로운 무엇인가 없을까 고심하던 끝에 예부터 우리 인간생활에 많은 유익함과 친근감을 주는 “오리”라는 테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31평 아파트에서는 저희 세 식구가 겨우 두 다리 뻗어서 잠을 자는 공간만 빼고, 거실은 물론 베란다, 서재, 화장실까지 온통 집안전체가 오리들로 가득차서 잠잘 때 조차 오리 꿈을 꾸기도 하고, 항상 껍~껍하는 오리들의 합창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직장 사무실과 창고도 판매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아니라 점차 오리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오리에게 미쳐버린 오리아빠”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수집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결국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던 건축업마저도 그만두고, 이처럼 소중한 오리들을 혼자만 좋아하기엔 너무 가까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리들을 보고 즐겨워하고 또 오리라는 동물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친숙하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기에 2년 전 오늘의 오리박물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정말 미쳐야 미친다(도달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저처럼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어야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리박물관은 하얀 지중해풍의 4개의 신전기둥이 떠받히고 서 있는 3층 건물로 1층에는 민속·골동품이 전시된 압구정이라는 카페 풍의 찻집이 있고, 2층엔 3,000여점의 다양한 오리식구들이 모여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각종 TV나 신문, 라디오, 책자 등 매스컴에 특이하고 별난 수집가의 오리박물관으로 많이 소개되었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처음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리박제 몇 개 째 눈요기로 전시해 놓은, 오리고기를 파는 식당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 오리박물관의 희한하고 다양한 수천 점의 오리들을 접하는 순간 놀라움과 신기함으로 가득 차 탄성을 내면서 관람을 하는 모습을



▶ 지상 위에 있어 더운차있는 오리배



품속의 연꽃



박물관 한켠에 핀 꽃

볼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박물관이 어색하고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한 맘으로 즐길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스개소리로 요즘도 가끔 오리박물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들어와 자리잡고서 오리고기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야 저의 설명과 오리작품들을 둘러보시고는 많은 감동과 보람을 느끼고 돌아가십니다. 심지어 저의 친지들 가운데도 그렇게 수차례 오리박물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지만 여전히 오리고기를 파는 식당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럴수록 저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박물관이 나이가 드신 분들께는 오리를 통해서 옛날의 향수와 추억을 선사하고, 어린학생들에게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리의 역사적인 유래와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제공하는 토탈아트(Total Art)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리박물관은 그 입구에서부터 오리가 올려져 있는 솟대를 보면서 이곳이 바로 오리를 위한 장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그 입구에서는 흙으로 구워 만든 오리 우체통, 대문 위로는 오리형상의

풍향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그 입구에 오리모양으로 잘 다듬어진 향나무가 서 있고, 오리모양의 예쁜 수도꼭지가 있는 아담한 연못엔 잉어가 노닐고 있으며, 연꽃이 가득 핀 연못가엔 두 마리의 모형오리가 입 속에서 계속 물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사냥할 때 유인용으로 사용하는 정말 진짜와 똑같은 모형오리 두 마리는 사람들마다 모두 살아있는 오리로 생각하고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정원의 넓은 데크 위엔 대구동촌 유원지에서 어렵게 공수해 온 5인승 오리배가 물 없어도 잘 떠(?)있고, 데크 주위와 정원엔 오리관련 나무와 오리작품들로서 꾸민 야생화들,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든 오리 토우들로 아기자기하게 연출하여 꾸며놓았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골동품들을 감상하면서 차 한잔을 마실 수 있으며, 카페 창 너머로 주위의 그림 같은 이국적 분위기의 전원주택들과 천성산과 영취산의 감동적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페 모퉁이에 자리 잡고 놓여진, 오리 모양의 스탠드가 올려져 있는 풍금을 치면서 옛 시절의 추억과 향수에 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

1층에서 2층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입구에서부터 드디어 “오리천국”의 시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동안 오리를 수집해 오면서 겪었던 재미있고 별난 사연들은 몇 페이지의 글로 다 쓰기에는 부족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오리를 사랑하는 마음(오사마)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조금씩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리박물관을 다녀가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오리식구들의 별난 사연들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저처럼 오리에 중독돼 자나 깨나 오리생각만하고, 모든 사물을 볼 때 오리에 연관 지어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리야~기리야~! 파이팅!!

▶박성용 관장의 [오리박물관] Tel.(055)389-1311